

투데이 칼럼

우리 언어의 특징

각 나라 언어는 각기 특성이 있다. 우리언어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가 생략된 술어 중심의 언어이기에 더욱 표정연기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우리언어 생활중 표정연기에 관심갖고 정확한 표현을 하여야 한다.

스피치의 효과적인 면에서도 멜라비언 법칙에 따르면 신체언어가 55% 음성38% 단어7%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 3가지 특징을 잘 살펴보고 정확한 의사소통에 노력하라.

물론 말에는 입말, 몸말, 글말이 있는데 말의 구분은 첫째 알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는 말, 둘째 알기는 알아야 하나 입밖으로 꺼내서는 안될 말, 셋째 반드시 알고 나서 해야 하는 말, 넷째 잘 몰라도 해야 될 말이 있다고 본다. 이 말의 뜻을 새겨 효과적인 언어 생활을 하여야 한다.

우리언어의 구체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의 언어는 공감대가 형성된 언어다. 즉, 거시기!, 그거 있잖아! 혹은 두세개, 너 몇 개, 대 여섯 개 등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물반의 그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에 다른 보조 설명이 많이 필요없고, 대신 표정 연기가 중요하다.

둘째, 우리의 언어는 상황 중심의 언어이다. 즉, 식사 때에 국을 떠먹으면서 '싱겨워'라고 했을 때와 회사 출근 때 지각을 했을 때에 상사가 '사람이 왜 이렇게 싱겨워'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또한 '짹짹하다'라는 표현에 있어 식사할 때 '짹짹해'라는 의미와 '요즘 경기가 여파?'라고 물었을 때 '짹짹해'라는 답변은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나 우리는 위의 두 단어의 경우 같은 '싱겨워'와 '짹짹해'라는 소리이지만, 전혀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두 의미를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표정과 상황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의 언어는 느낀 표현에 있어 과장된 언어이다.

예를 들어 '얼마만큼 좋아?'라고 물었을 때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라든가, '얼마만큼 사랑해?'라고 물었을 때 '죽도록 사랑해', '마치도록 사랑해'라는 표현은 외국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표정없이 말을 한다면 하늘만큼은 어느 정도의 호감을 나타내는 것인지, 땅만큼은 또한 어느 정도 좋다는 표현인지 구분을 짓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리고 아무런 표정 없이 죽음과 사랑을, 미함과 사랑을 어떻게 연관을 시켜 본래의 의미를 살려 나갈 수 있는가는 의문인 것이다.

다시 반복하지만 표정은 우리의 언어표현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우리 모두 인간관계에서 정확한 표현을 밝은 표정으로 밝은내용의 밝은 표현을 만들어 나가면 좋은사이, 좋은인간 관계가 되어 성공적인 삶을 누릴 수 있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겸임교수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왕이는 티베트와 먼저 회담하라”



18일(현지 시간) 인도 뉴델리 주재 중국 대사관 밖에서 망명 티베트인들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인도 방문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악수하는 미-우크라 정상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8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악수하고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설

부안 신동진쌀 뉴질랜드 수출

최근 부안농협이 명품 부안쌀 천년의 솥씨 '신동진쌀'을 뉴질랜드에 수출했다. 부안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열린 선적식에는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질랜드에 천년의 솥씨 신동진쌀 2톤을 수출했다.

신동진쌀 뉴질랜드 수출은 지난해 3차에 걸쳐 캐나다 235톤 수출을 한 데 이어 뉴질랜드 등 3개 국가에 7차에 걸쳐 270톤을 수출했다.

부안쌀 '천년의 솥씨' 수출은 쌀값 지지 및 안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수출쌀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냉장 컨테이너로 운송된다. 특히 인공지는 기술로 적정 수분 함량을 유지한다.

최상의 밥맛을 보장하는 찰단 유통 방식으로 해외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천년의 솥씨' 쌀 수출은 농협중앙회 차원에

서 쌀값 지지 및 안정화를 위한 조치다.

부안농협은 전복 쌀 수출 계획인 1100여석을 신규 시장 개척에 나섰다. 지난해 9월 캐나다 40t, 뉴질랜드 10t에 이어 10월 호주 10t, 11월 캐나다 55t 등 총 115t을 수출했다.

지난해 총 100t 수출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이다. 이는 2014년 공판에 조곡을 수출한 지 10년 만에 이룬 값진 성과다.

전북농협은 '신동진' 쌀 수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세계인의 아침 밥상을 책임지고, 수출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데 힘쓸 계획이다.

법국민 쌀 소비 촉진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 쌀 가공식품 리딩 히트상품 개발, 우리 쌀, 우리 술 K-라이프 페스타 개최 등 다양한 소비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

김제 광활 용평마을 어르신들의 전시회

전북 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 어르신들이 최근 전주에서 그림 전시회를 열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시회 이름은 '어르신들이 그림을 그린다 아카이빙 전(展)'이다. 전시회는 지난 8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전북예술회관 2층 미라네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회 참여자들은 모두 70대, 80대, 90대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시회 기간 중에 참여 어르신들과의 만남이 19일 오후 5시에 전시실에서 열려 더욱 인기를 모았다.

이 전시는 용평마을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100세 이하 어르신들과 지역 예술가가 함께 하는 공동체 예술 프로젝트의 아카이빙 전시다.

이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 김제시 광활면 용평마을에서 마을 벽화 요청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그 뒤 6년째 한 마을

에서 이어지고 있는 예술적 동행을 하고 있다.

예술가들은 익숙한 경험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제안을 하여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는 장을 열어가고 있다. 처음에 어르신들은 평생 처음 붓을 잡아 무엇을 그려야 할지 당황했다.

전문 지역 예술가들은 어르신들에게 늘 보아왔던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도록 유도했다. 지역 예술가들은 어르신들의 살아온 이야기로 연극도 만들었다.

화보 촬영하기를 비롯 각종 디지털 만들기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편견과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용평마을 어르신들은 대부분 백 살이 가까워지는 나이를 잊고 살아간다. 함께 가는 우리의 긴 여정에 노인 스스로 고정된 편견을 해쳐 나가고 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